2018년 6월 3일(주일) 속회공과

기도가 시작이다/ 느헤미야 1:1-11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통 480장)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많은 유다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성전과 성벽 공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더디고 주변의 방해는 극심해지며 백성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민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강대국 사이의 알력다툼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느헤미야가 고국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 나의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는 믿음입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까?

2.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니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성과 성문이라는 1차적인 보호막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동포들의 소식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점은 뼈아픈 현실에 대한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꺼안으며 회개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간구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 나의 말은 탄식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기도로 이어집니까?

3.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기슬르 월에 드렸던 기도가 니산 월에 응답되었습니다. 4개월 가량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이 지체된 것이 아닙니다.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올릴 때, 동포들을 향한 깊은 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큰 결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느헤미야의 수심을 풀어주기 원하는 생각을 왕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 시켰던 왕을 통해 공사가 재개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안되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기도가 답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탄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하여 후보에 동봉된 '기도책자'를 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